

챔피언 - 30대 남성 맞춤형도집회

인터뷰

“30대 특성 공감, 매주 주일예배 참석기로”

저는 중학교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꾸준히 다녀서인지 제게 중요한 일을 맡기더군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유학시기에도 한번 교회에 간적이 있긴한데 그 교회에서도 제게 바라는 것이 많아 포기했습니다.

이곳에 초청되어 예배에 참석해보니 제가 교회에 오기 힘들었던 많은 이유를 해결해줄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30대의 특성이나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해주셔서 공감되어 좋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이번 모임이 제게도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주일예배에 제 아내와 함께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김 상 진 형제

“봉사자들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이모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온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아는 형님과 함께 와본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롭고 트인 느낌의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일간 참석하는 동안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외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봉사자들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즐겁게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초청자들의 열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 거부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둘째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으면 된다’는 말에는 아무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 이 상 진 형제

“삼일동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누님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누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저를 전도하려고 길을 잘 닦아 놓신 것 같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챔피언 집회기간동안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에게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며 섬기는 모습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동안 직장과 집만을 왕래하며 다람쥐 쳇바퀴돌듯 생활하다가 삼일동안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 삼일이 제 삶에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 의 용 형제

“온누리 가족되고 싶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도 교회에 잘 다니시고 형식상 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일동안 참석하면서 모든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보며 저와 닮거나 비슷한 또다른 입체거울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의례 즐기마련이었는데 하용조 목사님 설교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3일동안 모임에 참석했다고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오비이락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집회동안 ‘나도 이제 한 교회에 소속되어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오래동안 기다려 오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 장 인 옥 형제

“아내의 기도에 이끌려 왔습니다”

아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 선물’로 삼일동안 집회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보며, 또 신앙인들의 삶을 지켜보며 보이지 않게 이끄는 어떤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아내의 초청으로 열린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사연, 이무송 부부의 간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첫째날 이어령 교수의 영상 에세이를 접하고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책을 많이 접해서인지 영상 메시지가 더욱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한 때 사회과학쪽에 몸담았습니다. 그때는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해 약간 곱지 못한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설교에 약간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은 쉽게 잘 풀어서 이해를 돕는 설교를 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밖에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고 신선했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승 학 형제

“아직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후배의 초청으로 어렸을 때 다녀본 교회이외에 이렇게 큰 교회는 처음 와봅니다. 교회가 커서인지 시스템이 무척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기에든 장비라든지 시설들이

아주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 이어져 지루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의 저명한 분들의 권면들은 특히 좋았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에게 베푸시는 이 맛있는 식사도 감동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말씀에서 가끔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이분법적인 설교 내용이 제게는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재미있어 앞으로 교회에 다녀볼 생각입니다.

박 재 흥 형제

“따뜻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집회에 오늘(마지막날) 처음 왔습니다. 처형이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소개로 왔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볼 만 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집회에 왔습니다. 가족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들어보고 정해보겠습니다.

- 노 용 주 형제

“평소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첫째날에는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길을 뒤돌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반환점이라는 말씀이 귀에 와 닿았습니다. 그 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날에는 계속 뛰어오던 생각 밖에는 없었는데 평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누님과 매형이 온누리교회에 다니시는데 한번 와보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교회라는 곳이 엄숙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서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 채 재 병 형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하용조 목사님의 ‘입양한 아이라도 크면 자신의 부모를 찾을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늙어서 편해질 때, 교회를 찾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힘든데 쉬는 날은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비우면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큰 일도 아닌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제 애인이 소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1년 이상 교제하고 있는데 가끔 따라와서 본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기독교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맹이를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이 고맙습니다. 취미가 아닌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 박 효 원 형제

*** 출처 : 온누리신문**